

일부지역 주민의 가족계획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간호전문학교 논문집, Vol. 5, pp. 173~197, 1979.

신 명 덕

1979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순천시에 거주하는 기혼가임부인 47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하여 가족계획에 지식 및 태도와 인공유산 실시에 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

- 1) 연령분포를 보면 30~34세가 27%로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35.1세였다.
- 2) 대상자의 71.6%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최하위는 유교로 0.2%였다.
- 3) 교육수준은 고졸이 37.5%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3.6%로 가장 낮았다.
- 4) 가족제도는 핵가족제도가 73.1%로 전체의 3/4을 차지했다.

2. 가족계획의 지식 및 태도

- 1) 전용답자의 84%가 가족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2) 현재 자녀수 분포는 3명이 30.9%로 수위이고 평균 자녀수는 2.6명이었다.
- 3) 이상자녀수는 아들 딸 각각 1명씩이 39.8%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상자녀수는 2.2명이었다.
- 4) 이상적 터울기간은 3년이라고 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상 터울기간은 2.8년으로 나타났다.
- 5) 피임실천율은 75.2%였으며 교육정도면에서 불때 고졸군에서 79.2%로 가장 많았고 피임방법에서는 먹는약이 38.6%, 루우프 25.8%, 콘돔 14.3%의 순이었다.

피임 실천시간은 셋째분만후가 37%로 가장 많았다.

- 6) 부작용은 41.2%에서 나타났고 내용은 오심. 구토가 30.6%로 수위였고 전신쇠약이 17.7%, 출혈이 15.6%, 염증과 요통이 각각 10.9%로 나타났다.

3. 인공유산에 관한 태도

- 1) 인공유산의 경험률은 전체 대상자의 61.1%(290명)였고 경험회수는 1회가 39.3%로 가장 많고 평균 유산회수는 2.0회였다.
- 2) 인공유산의 이유로는 피임실패가 29.6%로 수위이며 대부분 단산을 위해서였다.
- 3) 인공유산후 합병증은 77.9%에서 나타났고 주요 합병증은 요통이 41.2%로 수

위이고 하혈이 27%, 부종이 19.4%, 신열이 7.1%, 대하(냉)가 5.3%의 순이었다.

- 4) 합병증의 치료방법은 53.5%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았고 21.7%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치료받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 5) 유산후 85.8%에서 죄의식을 가졌고 극소수인 14.2%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 사업의 문제점

대한간호, Vol. 18, No. 3, pp. 37~44, 1979.

신 상 속

보건간호사업 수행에 따르는 문제점

가. 조직 및 감독체제의 문제점

사업발전의 주가 되는 사업감독(service super-vision)이 전혀 부재한 실정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사업을 직접 제공하는 보건소의 조직 및 감독체제가 <표 1>에서와 같이 전문적 간호사를 감독하는 감독자인 상위층의 직종이 모두 일반 행정직이므로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중앙의 지식에 의존하는 행정보고 위주의 사업으로 흘러 사업의 원래 목적인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 및 건강증진과는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일반 행정직의 지도 감독체제에서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으로 채용된 보조요원과 동등한 대우와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나. 보건사업과 행정지원의 문제

1. 보건사업은 대상자에게 보건지식을 전달하여 태도를 변화시키고 실천하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행정인이나 기업인이 직접 대상인의 행동을 통제 할 수 없다. 혹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실천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우며,

2. 보건사업을 위해서 일선기관의 하위 직원수만 증가시키고 정책결정권자가 근무하는 중앙부처의 경우 재량권 있는 인력이나 예산과 자원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 별로 흥미를 크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3. 막상 보건사업의 효율성은 일선기관의 성과에 달려 있는 데 이를 중앙에서 주관하는 부처가 일선 행정기관에 영향력이 약한 보건사회부이므로 일선 기관장이 이 사업